“불교복지 미래 성장 기반 구축하는 한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2022년 사업 계획 발표

2월 22일, 신년기자간담회 개최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 가속화
온라인 개발로 위드코로나 대응
국제개발 협력사업 강화도 박차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2월 22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종무기조’를 발표하고 “복지서비스 전문화와 미래성장 기반 원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2022년 핵심과제로 △불교사회복지시설 운영체계화 및 전문화 △재단 운영 시스템 정비 및 불교사회복지 성장동력 개발 △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자원봉사 실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불교사회복지 전문 인재 양성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안정화 및 네트워크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교구본사 중심 복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올해 은해사와 고운사, 백양사, 봉선사의 복지법인 설립에 나선다. 해당 본사 복지법인 설립이 완료될 경우, 전체 25곳 교구본사 중 18곳이 독립적인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사회복지재단이 산하시설 운영체계를 기존의 중앙 집중 형태서 교구본사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 분산된 복지시설 관리에 따른 중앙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밀착적인 복지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그동안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과도하게 집중된 전국 복지시설이 이관 및 분산으로 이어져 지역 간 사회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펴는 데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인 스님은 “교구본사별 복지법인 설립으로 각 교구본사들이 지역별 사회복지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보다 효과적인 복지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앙의 사회복지재단이 재단법인 고유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한다면 지역교구 복지법인들과 더불어 동반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다. 복지재단은 현재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 모금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으며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꾸준히 계발, 비대면 온라인 문화 속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트렌드에 발맞춰 나간다는 구상이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교계와 사찰, 산하시설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후원기업의 참여를 독려, 재단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보인 스님은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한다면 불교계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뿐 아니라 불교계의 사회적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불교사회복지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서도 활용될 전망이다. 물리적 ·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전국에 위치한 재단산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될 뿐 아니라 직급 및 직무별 맞춤형 특화 연수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개발 협력사업 네트워크 강화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안정화와 내실화를 위해 차기 MOU체결을 위한 협의 및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운영 및 성과관리 체계를 개선, 품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소통과 다양한 채널의 교육을 실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국내 · 외 개발 협력분야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보인 스님은 “2022년은 복지서비스 전문화와 미래성장 기반 구축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산하시설이 앞장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주인공 관법 수행하니 알파파 즉각 증대”

한마음과학원 의학팀 ‘IJERPH’ 게재 논문서 입증

안거 중 신도 23명 뇌파 측정
수행 시 측두엽서 알파파 증가
안거 참여 많을수록 효과 높아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가 주창했던 ‘한마음 주인공 관법’ 수행 시 뇌파 중 알파파가 즉각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다.

한마음과학원 의학팀(김주현 · 김미지 · 장미란 · 이준엽, 이하 과학원 의학팀)은 국제 환경보건 저널인 ‘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에 2월 2일 게재한 논문 ‘주인공 관법이 측두두정엽과 전전두엽 뇌파의 세타파 · 알파파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과학원 의학팀은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신도 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019년 하안거 기간 중 뇌파를 측정했다. 뇌파 측정은 주인공 관법을 측정했을 때와 다른 생각을 했을 때로 나눠 이뤄졌으며, 참가자 설문지에는 선원에 다닌 연도, 수계법회 참석과 안거 참석 여부 등이 조사됐다.

과학원 의학팀에 따르면 뇌파 측정 결과 주인공 관법 수행 시 알파파가 세타파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측두두정엽(관자놀이 윗 부분)에서 많이 나타났다. 한마음선원 안거 참석 횟수가 많을수록 이 같은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준엽 한마음과학원 의학팀 연구원은 “집중할 때 나타나는 알파파가 주인공 관법 수행 시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안거 수행을 많이 경험할수록 알파파가 더 많이 증대했다”면서 “주인공 관법 수행을 하면 뇌의 기능적 부분을 자기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는 영역마다 담당하는 기능이 다른데 측두부는 청각, 기억 등을 담당한다. 왜 주인공 관법이 측두두정엽에서의 알파파 증가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실험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주인공 관법 수행의 효과를 뇌파 측정 연구를 통해 입증해 국제학술 저널에 이를 게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김주현 과학원 의학팀 연구원은 “논문이 게재된 ‘IJERPH’은 인터내셔널 SCI급 저널이자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피인용지수)가 비교적 높은 저널에 속한다”면서 “한마음선원 주인공 관법이 뇌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른 수행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연구 분야다. 국제 저널에 연구 논문 게재는 한마음과학원의 연구 성과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은 “올해는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로 여러모로 의미가 큰 해이다. 그 시작을 과학원 의학팀이 알렸다”면서 “여러 연구팀들도 분발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큰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마음과학원은 오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마음선원 3층에서 ‘코로나 위기인가 기회인가? 마음, 과학, 종교’를 주제로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 추모 국제 한마음과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여성불자회 4월 출범한다

발기인 1080인 모집 공고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4월 12일 (가칭)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를 설립한다. 포교원은 2월 23일 “전국적인 포교조직을 설립하여 새로운 여성포교의 장을 열겠다”며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분들로 먼저 1080인의 발기인을 모시고 이분들을 중심으로 조직 구성과 의사결정 체계,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오는 4월 출범식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는 전국, 직장 직능, 연령별 계층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현재 포교원은 교구본사를 비롯해 사찰 · 단체 · 학교법인 등을 통해 발기인을 추천받고 있다.

포교원은 취지문을 통해 “기존 포교원이 설립한 여성조직의 경우 몇몇 이사진들의 주도로 활동하며 많은 아쉬움을 낳았다. 여성불자들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조계종 사부대중 공동체의 일원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열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전국여성불자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길 원하는 여성불자들은 3월 18일까지 추천서 및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사찰 주지스님 · 단체장 · 법인이사장 직인 날인 후 포교원 포교팀 이메일(hy@buddhism.or.kr) 또는 팩스(02-720-7065)로 제출하면 된다.

포교원은 “부처님께서는 ‘믿음은 경계에 대한 집착이 없고 모든 고난을 멀리 벗어나게 하며 가장 높은 해탈의 길을 나타나게 한다’고 하셨다. 종단 곳곳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이 부처님 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1080 발기인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사 · 봉은사 잇는 순례길 개발

포교원, ‘허응당 보우의 길’

순례는 재가신도 뿐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사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사찰로 인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신행 프로그램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지혜의 숲길’ 순례프로그램 개발사업 중 2022년 첫 성과물로 조계사와 봉은사를 잇는 ‘허응당 보우의 길’을 개발했다.

포교원에서는 지난해 ‘화엄사, 어머니의 길’과 ‘천은사, 상생의 길’을 발간, 순례길 보급에 나선 바 있다.

순례길이 ‘허응당 보우의 길’로 정해진 것은 조선의 숭유억불 정책 아래에서 선교 양종과 승과를 복원하는 등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보우 스님(1507~1565)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번 순례길은 조계사를 출발하여 청계천 - 동국대 - 미타사 - 동호대교 - 압구정 - 청담동을 거쳐서 봉은사에 도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순례 팜플렛에는 각각의 장소들이 지니는 가치와 의미를 사진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순례길을 개발하여 우리 사찰의 아름다운 길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보리가람대학 법인처장에 인석 스님

원행스님, 2월 22일 임명장



조계종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건립한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법인처장에 인석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2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송광사 벌교포교당 주지 등을 역임한 인석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인석 스님은 2월 28일부터 2년 동안 다르에스살람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운영 전반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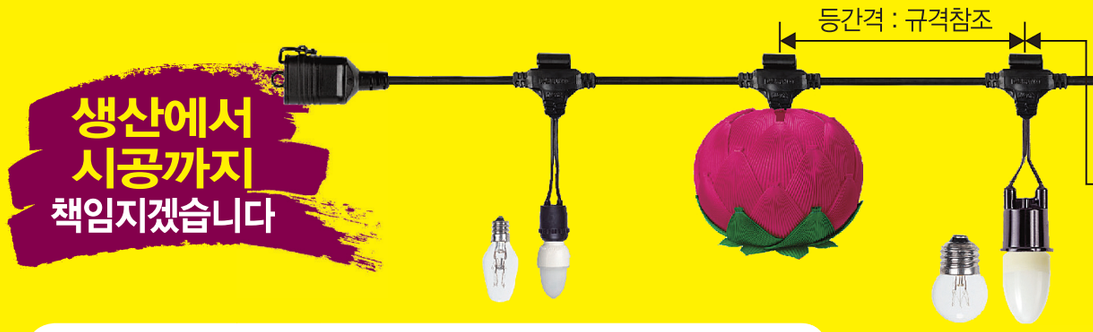
원행 스님은 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불교를 홍포한다는 마음으로 학교 운영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현지 기후와 풍토에 잘 섭생해 건강하게 생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석 스님은 “소통에 힘쓰며 묵묵히 베풀고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광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인석 스님은 2003년 통도사에서 사미계를, 2007년 직지사에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임은호 기자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